

'81년도 4/4분기 축산관측 결과

(내년 상반기 계란가격 다소회복전망,
육계가격은 약보합세 예상)

김 용 진

(축협조사부 경제분석과)

— 개 황 —

'81년 4/4분기에 실시한 축산관측의 결과를 보면 내년도 돼지경기가 불황이 될 전망이 있음에 따라 모든 축산물의 가격이 침체국면에 들지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경기예고 지표면 보면 9월까지의 상승세를 나타내어 1.1을 기록했으나, 10월에 다시 1.0으로 후퇴되어 내년초에는 경기회복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는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적정량의 수입육 방출조절로 금년말 수준의 가격이 내년도에도 보합세 내지 약간 상승될 것으로 보이며 한우 사육두수는 금년도의 가격상승, 쇠고기가격표시제, 적정량의 수입육 방출등으로 내년 6월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돼지두수는 9월에 200만두를 나타내 적정수준인 230~240만두 수준에는 다소 못미치고 있으나, 이중 모돈수는 33만두로서 이미 적정수준인 30만두 수준을 넘어섰다. 또 현재와 같은 두수추세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내년 3월에 총돼지두수는 230만두, 6월에는 250만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6월이

후에는 이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6월이후 돼지가격은 공급 과잉으로 생산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돈 농가에서는 명년도 예상되는 양돈불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증식만은 꼭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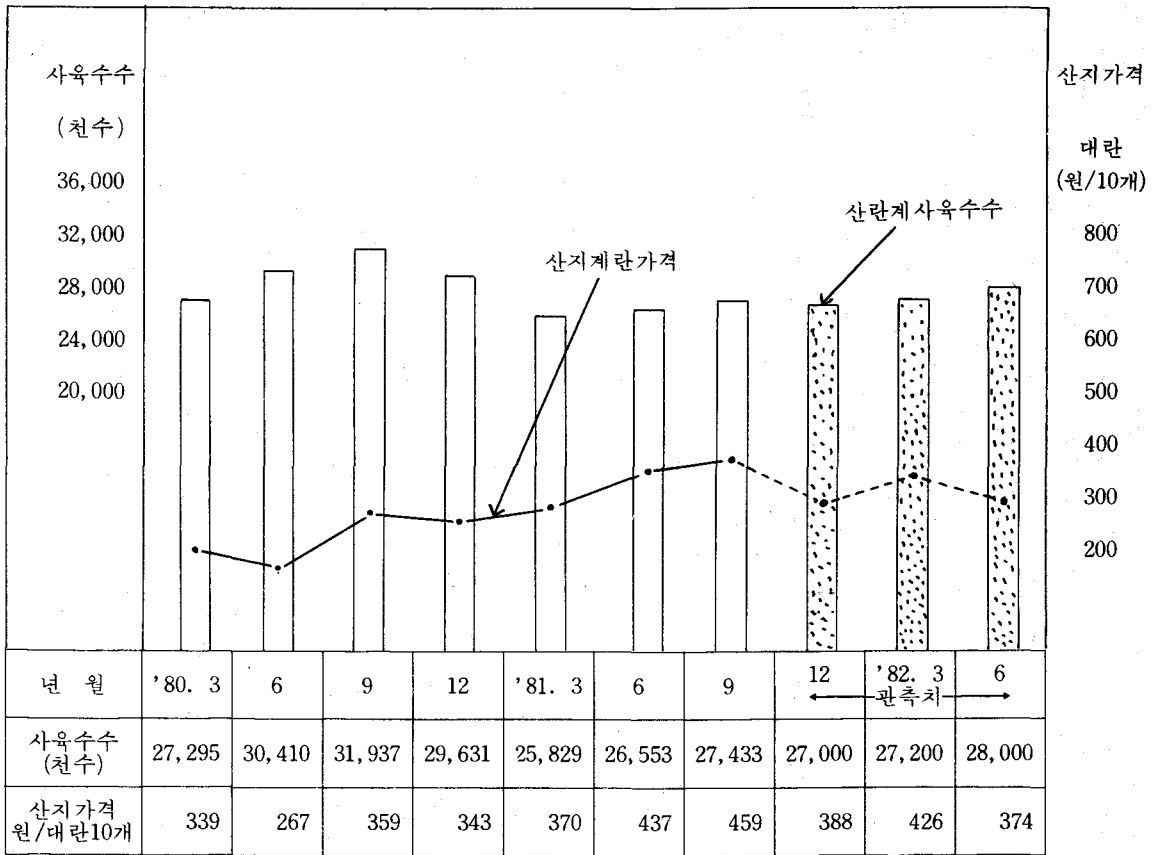
산란계를 금년도의 장기간 난가저조로 10월이후 양계농가가 초생추 입추를 기피하고 있어, 사육수수는 감소되고 계란가격은 년초와 봄철에 약간 회복되리라 전망된다. 또한 육계는 년말 초생추 입추감소로 년초부터는 육계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사육수수는 3월이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육계는 양돈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내년 후반기에 양돈불황이 온다면 육계경기 역시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 산 란 계 —

사육전망

'81년 3월 이후 계속 사육수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란계는 하반기 난가의 저조와 겨울철 보온시설, 연료비등 생산비 증대로 년말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겠으나, 내년

산란계 사육수수와 계란가격 동향



3월이후 다시 기존시설 이용 및 난가회복을 기대하여 사육수수의 증가추세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산란계는 경영 성질상 계절적 경기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수수조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수 증감율이 적어 금년말에는 9월보다 약간 감소한 2천 7백 만수, 3월에는 2천 720만수, 6월에는 2천 800만수로 증가될 전망이다.

수급 및 가격전망

계란가격은 계절 변동성이 뚜렷하여 4월, 9월에 최고점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장기간 계란가격 저조로 산란계 농가가 겨울철 초생추 입식을 기피, 사육규모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내년초부터 공급물량의 과다 현상은 점차 없어져 가격은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3,4월경의 소풍철에 수요의 정점을 이룰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산지가격이 대란 10개당 425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6월경에는 비수요기인데도 출하물량의 상대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되어 산지가격이 대란 10개당 375원 수준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 육 계 —

사육전망

육계는 계절 식품으로서 여름철인 7,8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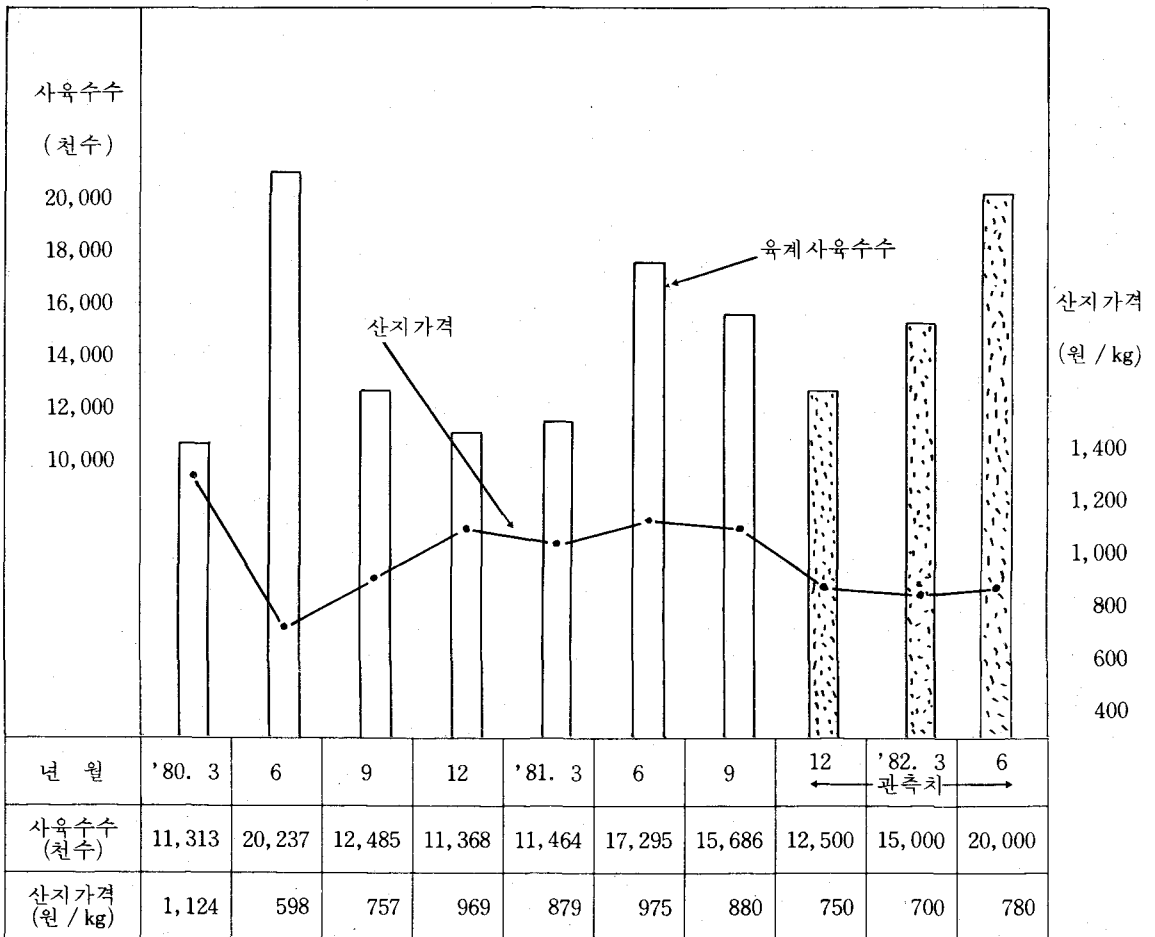
성수기에 대비하여 매년 6월말 사육수수가 가장 많은 일정한 주기를 보이고 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9~12월간은 감소추세가 예상되나 전년동기에 비하면 12월 사육수수가 14%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82. 3월에는 봄소풍철을 겨냥한 육계수수가 증가되어 1천 5백만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6월에는 7,8월 최성수기를 대비한 급증현상으로 2천만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5~30% 증가된 것이다. 더구나 명년도의 양돈경기가 불황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육계수수는 더욱 많이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육계는 45~60일이면 완전출하가 가능해 사육기간이 짧고 회전 속도가 빠르므로 입추 조절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수급 및 가격전망

육계가격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계절변동의 주기성이 약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금년도에 육계경기는 1~9월까지 전례없이 긴 호황을 지속했으나 경기침체와 추석이후 비수요기 및 9월 육계수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25%나 많아, 난가저조에 따른 노계처분 등으로 육계가격은 약세를 지속해 왔다. 그리

육계사육수수와 가격동향



하여 육계사육농가는 입추기피등 규모를 축소하는 실정으로 년말부터 내년2월까지 육계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분적으로 도계법이 시행되고 있어 생산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4,5월 소풍철에도 공급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약보합세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공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비 수준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든 양축가는 합심하여 사육규모를 조절하는등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겠다.

— 한 우 —

사육전망

'79년 6월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우는 6월말에도 '80년 말보다 2.9%가 줄은 132만두로 나타났다. 그러나 '81. 6월 이후는 수입육의 적정방출로 소 도축두수의 감소와 쇠고기가격 표시제에 의한 수익성제고로 암소의 밀도축이 크게 감소 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금년말 두수는 '81. 6월 수준내지 약간 증가된 추세가 전망되며, 내년도 봄철 송아지 생산, 수입육 적정방출이 기대되어 내년 6월 한우두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사육 전망

구 분	번 식 우		비 육 우	
	암 소 가 격 *	소 득	황 소 가 격 **	소 득
'80	623	136	776	355
'81	1 / 4	791	960	454
	2 / 4	929	1,126	550
	3 / 4	1,055	344	1,280
'81. 3/4 / '80대비%	69.3	153.0	64.9	22.3

(단위 : 천원 / 두)

(주) *350kg 기준 **400kg 기준

이와같은 한우두수 증가요인을 보면 소사육에 따른 소득이 '81. 3/4분기가 작년도대비해 번식우는 153%, 비육우는 22%로 상승되었고, 또한 한우증식 시책과 육우도입 등 관련 축산정책의 활성화로 한우 사육의욕을 고취시킨데 있다고 본다.

수급 및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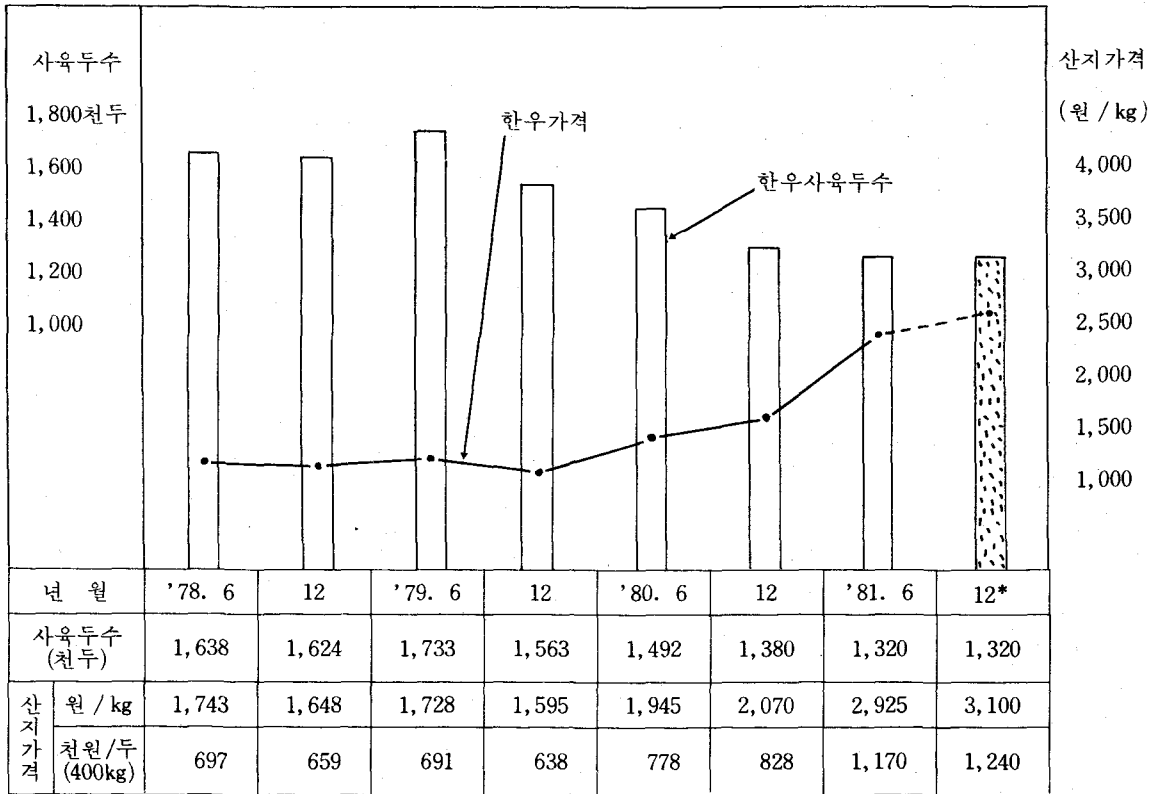
한우가격은 '81년 상반기부터 9월까지 한우도축량 감소 및 가격표시제 실시로 계속 상승추세를 유지하다가 10월이후부터 김장, 월동준비등 가격비 지출증가에 의한 쇠고기 수요감소, 연말부채정리를 위한 산지출하량 증가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 한우시세는 국내생산량이 수요량을 충족치 못하므로 금년말 가격 수준내지 강보합세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도 금년과 같이 한우사육 양축가의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량의 수입육을 조절 방출할 것이므로 한우 가격 및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돼 지 —

사육전망

'81. 3월부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수수는 '81. 9월말 현재 199만 9천두

한우사육두수와 가격동향



* 관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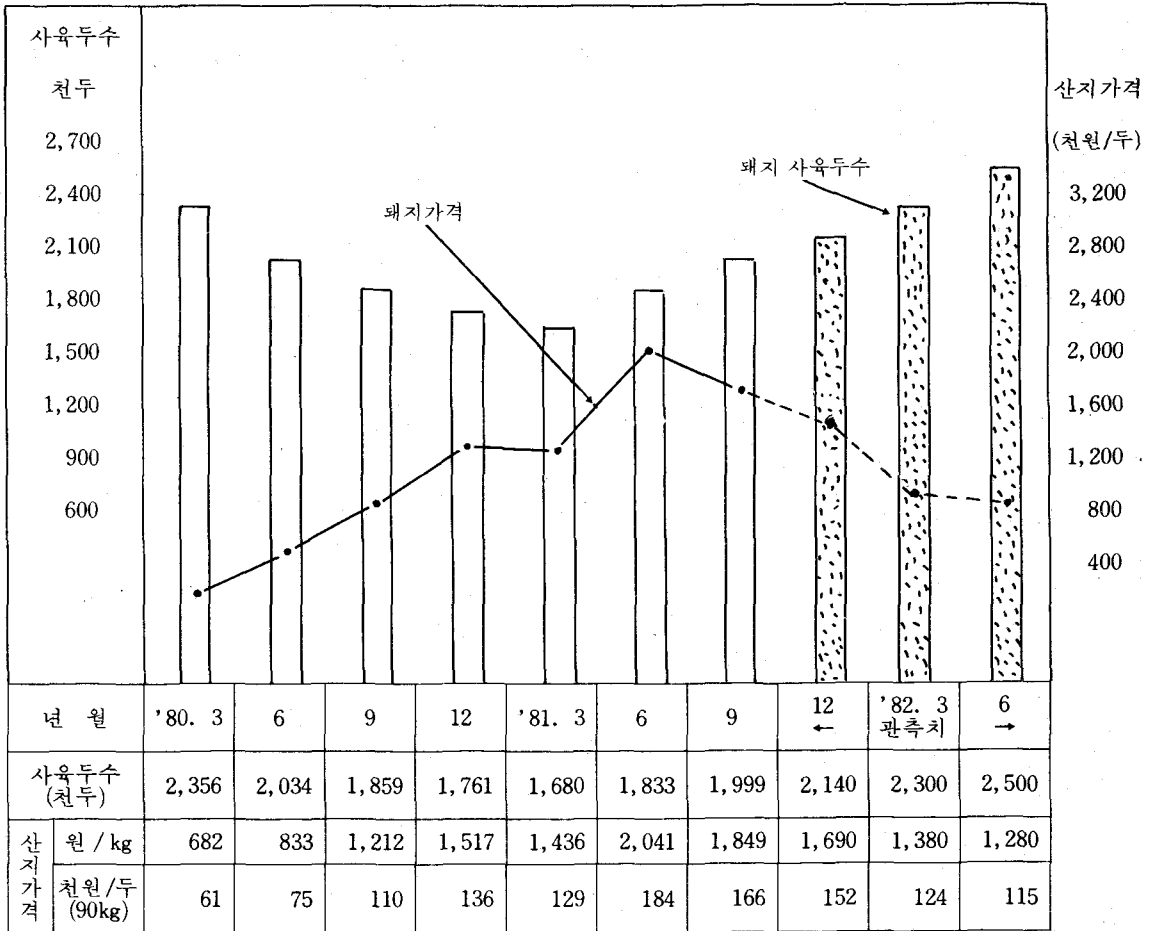
로 6월말에 비해 9%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계속되어 '82. 3월말에는 230만두 수준에, 6월말에는 250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모돈수는 9월말에 이미 적정수준인 30만두를 넘어섰으며 6월에 비해 석달동안 11%나 크게 증가하여 양돈가들의 자율적인 모돈감소 및 두수조절이 없었던 6월이후 사육두수는 급증되어 250만두 수준 이상이 될 것이며 이 두수는 생산의 가속화로 큰 불황도 우려된다.

수급 및 가격전망

32개월을 주기로 변동하는 돼지가격은 '80. 1월부터 '81. 5월까지 장기간 가격 상승세로

'81. 5월에 최고점을 이루다가 '81. 6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는 후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적어도 '82년 중반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명년 4월 이후에는 공급물량의 과다로 돼지가격은 생산비 수준이하로, 6월 이후는 경영비 수준이하인 두당 11만 5천원 정도로 하락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내년 7,8월부터는 지난 '79년도와 같은 불황에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양돈가는 스스로의 사육두수 조절과 9월 수준에서 10%의 모돈 감축을 실시, 예상되는 명년도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합심 노력해야 하겠다.

돼지사육두수와 가격동향



航空券 (國際線) 發券
國內線

海外旅行幹旋
旅券手續代行

KTS (株) 韓國旅行社

KOREA TRAVEL SERVICE, INC.

TEL. 777-6441 ~ 5 담당 김 용 철